

또 어이없는 죽음...광주 안전사고 '지뢰밭'

무등산 산책하던 60대 여성
목재 다리 난간 무너져 추락사
부실 시공·관리 가능성 조사
클럽 붕괴 이어 참변 잇따라
매뉴얼 만들어 정기 점검해야

무등산 산책길을 따라 걷던 60대 여성이 탐방로 실개천의 목재 다리 난간이 떨어져 나가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광주 시와 동구 등 자치단체들은 사고가 난 탐방로를 10여 년전 조성한 뒤 사후 관리에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에 이어, 또다시 광주 도심에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광주시의 '후진국형 안전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중심사지구 내 산책로 구름다리에서 한모(여·69)씨가 3m 아래로 떨어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한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등산객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인 1일 오전 11시께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씨가 산책을 하던 중 목재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난간에 잠시 기대있는 과정에서 난간이 파손되면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락 장소에서는 부식된 목재난간과 함께 녹이 슨 이음쇠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리 부실 또는 부실 시공에 의한 사고로 보고, 광주시와 동구청 등 자치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도면 대로 목재데크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한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지난 27일 새벽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코요테 어글리' 클럽 붕괴사고



1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천에서 동구청 관계자들이 산책로 목재다리의 부식된 난간(흰색 점선)을 점검하고 있다.

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돼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산책로는 지난 2010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증심사천 개수공사 2공구'의 하나로 조성해 동구로 관리를 이관한 곳이다.

국립공원 무등산 초입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이 공사에는 예산 15억 8800만원이 투입됐으며, 동구 학운초 인근부터 중심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1.2km 구간에 폭 1.8m 산책로와 함께 높이 1.2m 난간, 목재다리 3곳, 웅벽 등이 설치됐다.

조성된 산책로는 국립공원 무등산과 맞닿아 있는데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와 곳곳에 가로등도 설치돼 있어 야간 운동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사고를 당한 한씨도 동구 지원동 흥림교(배고픈다리)

인근에 거주하며 이 산책로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책로가 조성된 이후 자치단체의 관리에 사실상 전무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들이 전시행정으로 탐방로·산책로 조성에만 집중할 뿐 예산이나 인력 등을 핑계로 조성 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조성한 탐방·산책로는 82개 노선 222km에 이르지만, 관리 예산이나 인력은 미미하다.

동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산책로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관 받은 후 직원 1명이 매번 한차례 육안검사를 해왔다"며 "광주시로부터 점검사항이나 보수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산책로 담당은 "광주시가 막부가내로 산책로를 조성한 뒤, 사후관리 등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서 "관련 예산이나 인력은 없는데, 광주시에서 무조건 일만 떠넘기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송창영(전남대박사)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자치단체가 산책로 등을 만들 때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체주기 점검, 부식 여부, 접합부 강성 테스트 등을 해야 한다"며 "또 난간이 어느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폭행 동영상 일파만파 우즈벡 정부, 신속한 수사·처벌 촉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국인이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폭행 피해자를 자국민으로 추정하고, 한국정부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 사건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 폭행 동영상까지 번지면서 외국인 폭행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업무를 대행하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 사무소는 외국인 폭행 영상의 당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31일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피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외사·사이버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SNS '페이스북'과 온라인 사이트 '유투브' 등에 '장갑 달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한 농촌 일터에서 농장 관리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남성에게 "장갑은 내가 가지고 다녀야지 왜 달라고 하나"며 욕설과 함께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험문제 유출 광주 사립고 교사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일 시험문제 유출의혹으로 고발당한 광주시 북구 모 학교 수학교사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수학 동아리에 제공된 유인물에 있던 5개 문제를 지난달 5일 치러진 기말고사에 동일하게 출제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시험지 유출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하

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한 시험·성적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시험문제 유출의 고의성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교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기말고사 외에도 시험문제를 유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료 여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긴급체포

광주광안경찰은 1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 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A(42)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여·31)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던 청소부

는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씨와 몸싸움을 한 후 현장을 떠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7시께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클럽 붕괴사고' 공동대표 중 한명이 불법 증축 시공업자

공사대금 대신 지분 받아 참여

광주 '코요테 어글리' 클럽 붕괴 사고(광주일보 2019년 7월29일자 10면)로 입건된 공동대표 중 한명이 불법 구조물을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클럽 전 대표 A씨를 비롯한 공동대표 2명은 2015년 6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자격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불법 구조물 증·개축

을 맡겼다. 공사 후 A씨 등은 공사대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B씨에게 지분을 뒤 클럽 공동대표로 참여시켰다.

이후 A씨 등 최초 운영자 2명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 법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6년 1월 자신들의 지분을 다른 2명에게 넘겼다. 새로 지분을 넘겨받은 2명은 B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자신의 가족인 무자격 용접업자 C씨에게 불법 증축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현장 검증 결과와 진술 등 수사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한 63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의회에 이어 북구의회도 특혜 의혹이 있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북구의회는 다음 주께 의원 간담회를 열고 북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